

해남 땅끝마을로 조개잡이 체험 떠나볼까

휴가철 어촌체험장 속속 개장
개매기·조개캐기·갯벌 등
마을별 특색 살린 다양한 체험

“이번 주말엔 해남으로 조개잡이 떠나볼까.”

해남에는 다양한 바다활동과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어 색다른 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의 대표적인 대죽리 조개잡이체험장이 지난달 29일 개장한데 이어 구성리 체험장 등 어촌체험마을도 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땅끝마을 가는 길에 위치한 대죽리 체험장은 썰물때면 건너편 대섬까지 하루 두차례 바다가 갈라지며 1km 정도 길게 드러나는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할 수 있다.

수려한 땅끝바다의 경관과 더불어 바지락과 낙지, 꽃게 등 해산물이 풍성한 어장으로 매년 5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있는 조개잡이 체험장으로 꼽히고 있다.

마을어촌계에서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

다. 어린이 3000원, 중학생 이상 5000원의 체험비를 받고 있으며 호미와 장화, 소쿠리 등은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송평해수욕장과 인접한 화산면 구성리 바지락 체험장은 썰물때면 바닷길이 열리며 드러나는 ‘치둥’을 조개체험장으로 조성,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구성리 체험장은 한달에 3~4일, 물결이 열리는 기간에만 개장하기 때문에 바지락이 굵고 맛이 좋아 체험시기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올해 개장기간은 1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바구니 기준으로 큰 바구니는 1만원, 작은 바구니는 5000원이다.

또 송지면 사구어촌체험마을과 북평면 오산어촌체험마을, 황산면 산소어촌체험마을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매기 체험, 조개캐기 체험, 갯벌체험 등 마을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어촌 체험을 진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곳곳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며 “해남의 청정 바다와 갯벌에서 색다른 체험으로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송지면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반도 마한사회 재조명’ 국제 학술대회

해남에 남아 있는 고대 마한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백제학회·대한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일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임영진 전남대 교수의 ‘해남반도 마한사회의 역사적 성격’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가 사적 제449호 해남 송지면 군곡리 유적의 위상’ (한옥민 목포대박물관)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해남반도 마한 소국의 기항지’ (문지연 대한문화재연구원), ‘해남반도 마한산

성 재인식’ (양시는 충북대), ‘문헌에 나타난 신미제국의 실체’ (강봉룡 목포대) 등 모두 8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 후에는 서울대 권오영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도 한다.

동북아시아 국제교류 무역망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해남반도는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현장이다.

해남군은 대동령의 지역공약인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과 연계해 해남의 마한 유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19일까지 ‘보배섬 SNS 서포터즈’ 30명 모집

진도군이 제1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관심과 열정으로 뛰는 SNS 홍보대사로 보배섬 진도군의 독특한 매력을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 줄 ‘제1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30여명 내외로 선발한다.

대상은 지역 제한이 없으며 사진·동영상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된다.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00jindo00) 등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24일 발표한다.

군은 SNS 서포터즈에게 게시물에 대한 원고료와 우수 게시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전남 군의회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해남군, 의장 이순이·부의장 김병덕 의원

해남군의회는 최근 제283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의회 전반기 이괄 의장에 이순이(66·3선) 의원, 부의장에 김병덕(49·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장은 보건소·여성회관 등에서 근무한 행정공무원 출신 의원으로, 해남군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이 됐다.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김석순 의원, 총무위원장에는 김종숙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정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순이 의장은 “의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남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



이순이 의장

김병덕 부의장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군, 의장 조인호·부의장 허궁희 의원

완도군의회는 최근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조인호(53·3선) 의원을, 부의장에 허궁희(58·초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의회 운영위원장에 우성자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 박재선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재홍 의원을 선출하는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조인호 의장은 “각 분야에서 식견과 경륜을 고루 갖춘 동료 의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허궁희 부의장

를 목표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 문화경관 세계유산 등재 가치 충분”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

보길도 윤선도원림과 청산도 구들장은 등 완도지역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최된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완도지역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완도군이 추진하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은 보길도 윤선도 원림과 청산도 구들장, 청산 상서리·여서리 돌담, 완도수목원, 보길 해변 상록수림 등 완도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다.

연구용역팀은 지난해 8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중간보고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 3월에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후보지를 둘러보고 자문회의를 가졌다.

외국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영국 헨리 오펜 존 자문위원은 “완도군 후보지의 문화경관 자원은 충분히 세계유

산에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 책임연구원인 류제현 교수는 “완도군 후보지는 각각 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등재 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확인했으며 최종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다”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완도군은 세계유산 등재 사전단계인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재청에 등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계기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완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유산 등재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다면 지역 문화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